

급증하는 아동 정서적 학대...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실태 보니

광주·전남 아동학대 작년 2764건 신체 폭력 대신 정서학대로 변화 어린 부모들 경제·정신적 문제로 방임·학대 사례 갈수록 증가 추세 전문가 "선제적 개입·지원 필요"

광주·전남지역에서 아동학대 양상이 체벌 등 신체적 폭력에서 정서적 학대로 변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로 접수된 광주·전남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광주·전남에서 7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3455건, 2020년 3133건, 2021년 2943건, 2022년 2166건으로 집계됐다.

감소세를 보이던 아동학대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아동학대의 유형 중 정서학대 신고 비율도 크게 늘었다.

전국 단위 기준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정서학대가 43.1%(1만1094건)로 가장 많고, 중박학대(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학대, 28.7%), 신체학대(18.3%), 방임(7.7%), 성학대(2.3%)순이었다. 2019년 정서학대가 25.4%(7622건)로 중박학대(48.2%)에 이어 두번째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언어적 모

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광주·전남에서 공통적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로 여겨지지 않았을 사안이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판단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에는 지난해 나주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세, 8세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한 것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라고 판단된 것이다.

최근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아이 다툼에 어른이 나서서 상대방 아이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도다.

지난해 8월 4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자녀와 말다툼을 한 아동에게 "내가 왜 선생이 안 됐는지 알아? 너희 같은 애들 때릴까봐 선생이 안 된 거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욕박지른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벌금 1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동진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정서학대의 경우 아동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같은 행동, 말이라도 맥락과 상대의 감정에 따라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교육을 명분으로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 아



18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24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서 북구 직원과 어린이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를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 등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부모들이 경제·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아이를 방임·학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20대 여성 C씨는 13개월 여아를 방치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C씨

는 강아지 대소변으로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자녀를 두고 자주 외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호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팀장은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성장해 가해자가 된 사례를 자주 접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 처벌 등 사후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돌봄·의료 비용, 상담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광주시 북구·목포시·나주시에서 시행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폐기물 수거차량에 숨진 초등생 유족 운전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소

수거업체 대표·입주자대표회장도

광주시 북구의 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10월31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피해자 부모가 사고차량 운전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유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유가족은 사고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운전자의 회사 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체 대표, 입주자대표회장 등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거차량 운전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보지 않은채 빠른 속도로 후진해 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은 수거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작업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에 대해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제출했다.

유족들은 이밖에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렸는지 여부와 차량과 인도의 경계에 차량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세워졌던 연석을 제거한 사실도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치위진 연석에 대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광주북부소방의 소방도로와 관련된 지적사항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해 대해서도 소방의 지적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해외직구 위장해 위조상품 반입 '딱 걸렸네'

광주세관, 밀수조직 6명 송치

시가 3억원 상당의 MLB 운동화, 스타벅스 텀블러 등 각종 위조 상품 3554점을 국내에 반입한 밀수조직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한국계 중국인 총책을 포함해 국내 수거와 판매책, 유통 중간인까지 망라한 밀수조직 6명 전원을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밀수품을 보관해온 창고를 추적해 에르메스 운동화, 불기리 시계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 5000여점(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국내 판매책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

전원의 꿈 앳아간 농막 판매 사기 피해 잇따라

농촌 전원생활이 인기를 끌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농막(農幕)판매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꿈꾸던 농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사기혐의로 중고거래사이트에 농막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를 수사 중이라고 18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판매자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10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00만원에 농막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 200만원을 입금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

려해 국내 거주 중인 645명의 명와 22개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백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소액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정식통관 서류를 이용해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밀수된 위조 상품은 중개인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에 넘겨졌고, 이후 전문 상인들에게 도매로 유통되거나 소매업자들의 SNS 생방송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려했다.

해당 판매자의 변호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외에도 고창, 대전, 춘천 등지에서 같은 방식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에는 지난 11일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만원을 주고 농막을 구매했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피해자는 A씨와 다른 판매자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인 기자 kdi@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